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 SCRIPTORY

창세기 16 주차 (창 10:21~11:26)

(2016년 4월 3일 - 2016년 4월 9일)

(제4권 16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sup>T</sup>ORY** 제 4 권-제 16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4 월 3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셈...타인의 이름으로 설명되다 (주일)

### 오늘의 본문 (창 10:21~32)

- (21 절) 에벨의 자녀들의 조상, 야벳의 형인 셈에게도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וְלִשְׁם יָלֵד גַּם-הָיָה אָבִי כָל-בְּנֵי-עֵבֶר אַחֵי יִפְתַּח הַגְּדוֹל)
- (22 절) 셈의 아들: 엘람, 앓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בְּנֵי שֵׁם עֵילָם וְאַשּׁוּר וְאַרְפַּכְשָׁד וְלוּד וְאַרָם)
- (23 절) 아람의 아들: 우스, 훌, 게델, 마스. (וּבְנֵי אָרָם עוּז וְחוּל וְגֵדֵל וְמָש)
- (24 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וְאַרְפַּכְשָׁד יָלַד אֶת-שֵׁלַח)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וְשֵׁלַח יָלַד אֶת-עֵבֶר)
- (25 절)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וְלִעֵבֶר יָלֵד שְׁנֵי בָנִים)  
한 명의 이름은 벨렉입니다. (שֵׁם הָאֶחָד בְּלַעַל)  
왜냐하면 그의 시대에 그 땅이 나뉘었습니다. (כִּי בְיָמָיו נִפְלְגָה הָאָרֶץ)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욥단입니다. (וְשֵׁם אַחִיו יֻקְטָן)
- (26 절) 욥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를 낳았고,  
(וַיֻּקְטָן יָלַד אֶת-אַלְמוּדָד וְאֶת-שֵׁלֶף וְאֶת-חֲצַרְמֹנֹת וְאֶת-יְרָח)
- (27 절) 하도람, 우살, 디글라, (וְאֶת-הָדוּרָם וְאֶת-אוּזָל וְאֶת-דִּקְלָה)
- (28 절) 오발, 아비마엘, 스바, (וְאֶת-עוֹבָל וְאֶת-אַבִּימָאֵל וְאֶת-שָׁבָא)
- (29 절) 오빌, 하월라, 요밥을 (낳았습니다). (וְאֶת-אוּפָר וְאֶת-חַוִּילָה וְאֶת-יוֹבָב)  
이들 모두가 욥단의 아들들입니다. (כָּל-אַלֶּה בְּנֵי יֻקְטָן)
- (30 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향하는 길의 동쪽 산이었습니다.  
(וַיְהִי מוֹשְׁבָם מִמִּשְׁאָ בְּאַכָּה סְפָרָה הַר הַקְּדָם)
- (31 절) 이들이 셈의 아들들입니다, (אַלֶּה בְּנֵי-שֵׁם)  
그들 가족과 그들 언어를 따른, (לְמִשְׁפָּחָתָם לְלִשְׁנָתָם)  
그들의 땅과 그들의 종족에 의한. (בְּאַרְצֹתָם לְגוּיֵיהֶם)
- (32 절) 이들은 그들 종족의 가족을 따른 노아 아들들의 가족입니다.  
(אַלֶּה מִשְׁפָּחַת בְּנֵי-נֹחַ לְתוֹלְדָתָם בְּגוּיֵיהֶם)  
홍수 이후에, 이들로부터 민족들이 그 땅에 나뉘었습니다.  
(וּמֵאַלֶּה נִפְרְדוּ הַגּוֹיִם בְּאַרְצֵי אֶרֶץ הַמְּבֹרָא)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셈은 아브라함의 선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단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보낼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셈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난히 셈에게 눈길이 간다. 게다가 야벳과 함의 가계와는 달리 셈에게서는 뭔가 특별한 것, 말하자면 그들보다 월등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배출한 가계이니 말이다. 믿는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 게다. 하지만 실망이다. 셈의 자손들에게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도 찾을 수 없다. 너무도 평범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투명 인간처럼 역사에 남긴 족적

도 거의 없다. 하나님은 너무도 평범한 썸의 후손, 그 중에서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사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그렇기에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썸의 후예들이지만 족보를 기록하는 데는 함이나 야벳의 족보 기록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는 분명 함이나 야벳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21 절을 읽어보자.

“에벨의 자녀들의 조상, 야벳의 형인 썸에게도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창 10:21).

무언가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가? 이 문장에는 다른 형제 즉, 야벳과 함의 족보에는 없는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저자는 다른 형제와는 달리 썸에 관해서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두 형제들은 모두 “야벳의 아들은...”(창 10:1), “함의 아들은...”(창 10:6)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썸을 소개할 때에는 에벨 자녀들의 조상이자 야벳의 형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다. 사족을 달자면 썸을 수식하는 말에 함의 형이라는 말은 없다. 저자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함에 대해 인색하든지 아니면 함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래저래 함은 단단히 낙인이 찍힌 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썸을 수식하는 말에 그의 증손자 에벨의 이름이 거론된다. 썸의 증손자 에벨에 관해서는 뒤에 기술해도 될 텐데 굳이 썸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을 거론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분명 이렇게 기술한 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에벨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둘째, “썸에게도 자녀가 태어났습니다”라는 표현이다. 이같은 표현은 그의 형제 야벳과 함의 기록에서는 쓰이지 않은 표현이다. 10 장 1 절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을 한데 묶어서 포괄적으로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고 표현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 표현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낳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동사는 ‘야라드’(יָלַד)다. 창세기 저자는 10 장 1 절에서는 이 단어를 능동태로 썼다. 아들들이 주어다. 그런데 21 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수동태로 다르게 쓰고 있다. ‘자녀들이 그에게서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표현은 창세기 4 장 26 절에서도 쓰인 적이 있다. 셋의 후손인 에노스의 탄생을 기록할 때도 수동태로 표현했다. 당연히 에노스를 낳은 사람은 셋이다. 하지만 성경은 셋을 주어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썸이 아들들을 낳았다고 표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동태를 써서 아들들을 강조하고 있다. 히브리어 표현에서 주어를 생략하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주체가 따로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왜 에벨을 대신한 셋과 택하신 족속의 선조인 썸 모두가 투명 인간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무시되어야 했는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았던 가인의 후예와는 달리 아벨, 셋, 썸은 모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아벨은 이름 자체가 ‘없음’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이 세상에 와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죽었다. 그를 대신한 셋도 마찬가지다. 그가 한 일이라곤 이 땅에 에노스라는 아들을 남긴 일 밖에 없다. 썸은 어떨까? 썸은 자신의 이름만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증손자 에벨과 동생 야벳으로 그를 설명하고 있으니 말이다. 심지어 아들들을 낳는 것도 모두 수동태로 처리하여 그가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한 일이라곤 아무 것도 없는 게 돼 버렸다. 철저히 없음인 것이다.

아벨, 셋, 썸의 족보를 보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이 없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예다. 그는 선택받은

민족인 히브리인으로서의 특권, 바리새인으로서의 의로운 삶, 누구보다 강렬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 등을 모두 내려 놓았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빌 3:7-9).

바울은 누구보다 내세울 게 많았던 사람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생각했다. 단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신은 아무런 존재도 아님을 알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해지기를 원했다. 그는 없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이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철저하게 자신이 없음이 되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를 더 들어 보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이 고백이 비단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 한 일을 남들이 몰라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당신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없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 에벨은 누구인가?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0:21~32)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은 셈을 ‘에벨의 자녀들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셈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에벨이라는 이름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에벨에 대해 좀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성경에 기록된 에벨의 계보를 보면 셈 → 아르박삿 → 셀라 → 에벨로 이어진다. 심심풀이로 각각의 이름이 지니는 뜻을 하나로 이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된다. 셈은 ‘이름’, ‘특별한 사람’, 또는 ‘거기(장소)’라는 의미다. 아르박삿은 ‘갈대아의 주변인’ 또는 ‘그가 놓으리라’라는 뜻이고, 셀라는 ‘보내다’, ‘메신저’라는 뜻이다. 그리고 에벨은 ‘다른 곳으로 건너가다’, ‘강을 건너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면 ‘특별한 사람이 갈대아의 주변인으로 살다가 그곳에서 강 건너로 보내어진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른다.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주변인으로 살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다. 그냥 재미삼아 풀어본 이야기인데 그럴 듯하다. 분명히 강조해 두건데 이것은 재미삼아 해 본 지극히 개인적인 언어유희일 뿐이니 이 말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로 에벨의 어근은 히브리의 어근과 동일하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자음으로만 구성된 언어이니 에벨은 곧 히브리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건너온 자’란 뜻이다.

다시 에벨의 이야기를 해보자. 에벨은 아들 둘을 낳았다. 욥단과 벨렉이다. 10 장은 욥단의 계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벨렉의 후손은 11 장 10 절로부터 이어지는 셈의 족보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25 절에서는 특이한 기록이 나온다. 에벨의 아들 벨렉을 설명하면서 그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시대에 그 땅이 나뉘었습니다”(25 절 하반절).

사실 벨렉(בלק)이라는 이름이 ‘나뉘다’라는 뜻이다. 벨렉이 에벨의 아들이니 벨렉의 이름 또한 에벨이 지었을 것이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참고로 큰 아들 욥단의 이름은 ‘작은 자’, ‘중요하지 않은 자’라는 뜻이다. 벨렉의 시대에 땅이 나뉘어진 것에 대해 어떤 학자는 당시에 큰 수로를 건설했을 거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11 장에 나오는 바벨을 건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흠으신 것을 의미한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케네스 메튜스의 견해에 동의하는데, 그는 당시에 땅이 나뉘어졌다는 것은 에벨로부터 욥단 가문과 벨렉 가문 둘로 나뉘어졌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기록이다. 창세기의 대부분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은 아들 둘이 있었다. 이스마엘이 맏아들이고 이삭이 둘째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다. 이삭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손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을 선택



하셨고 아브라함이 100 세 때 마침내 사라는 이삭을 낳았다. 그래서 마침내 만아들 이스마엘과 둘째 이삭이 나뉜다. 이삭은 아들 둘을 낳았다. 에서와 야곱이 그들이다. 둘은 쌍둥이였다. 리브가가 그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둘째를 선택하셨다. 하지만 누가 둘째로 태어날지 이삭과 리브가는 전혀 몰랐다. 이러한 예언을 알 도리가 없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먼저 나오려고 다투다가 형 에서의 뒷다리를 잡고 둘째로 태어났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이렇게 야곱과 에서도 결국 나뉘게 된다.

참고로, 욥단의 아들들 중 한 사람 ‘예라’ (עֵרָא)를 주목해 보자. 그를 보면 욥단의 후예들이 누구인지 추측해볼 수 있다. ‘예라’는 ‘달’ 또는 ‘달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아마도 이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살면서 달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아라비아 지방에서 탄생한 이슬람이 달을 그들의 상징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추론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에벨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만약, 추정한 바와 같이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 연상되고, 에벨이 아들을 낳고 벨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면 아마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인간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볼 때, 에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있었으리라는 가정을 해보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에벨처럼 없음으로 살 뿐 아니라 히브리라는 말처럼 강을 건너온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신의 터전으로 주실 날을 소망하며 일생을 나그네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당신도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날들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다 (화요일)

### 오늘의 본문 (창 9:1~9)

- (1 절) 온 세상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이 있었습니다. (וַיְהִי כָּל־הָאָרֶץ שְׂפָה אַחַת וּדְבָרִים אַחָדִים)
- (2 절) 그들은 동쪽에서부터 이동할 때, (וַיְהִי בְּנוֹסְעֵם מִקֶּדֶם)  
시날 땅의 평지를 발견하였고,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וַיִּמְצְאוּ בְּקֵצהַ בְּאֶרֶץ שִׁנְעָר וַיֵּשְׁבוּ שָׁם)
- (3 절) 그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וַיֹּאמְרוּ אִישׁ אֶל־רֵעֵהוּ)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단단하게 굽자. (הֲבֵה נִלְבְּנָה לְבָנִים וְנִשְׂרָפָה לְשֵׁרָפָה)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습니다.  
(וַתְּהִי לָהֶם הַלְבִּנָּה לְאַבֹּן וְהַחֲמֹר הָיָה לָהֶם לַחֲמֵר)
- (4 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자, 우리가 도시와 그 꼭대기가 하늘에 있는 탑을 건설하자.  
(הֲבֵה נִבְנֶה־לָּנוּ עִיר וּמִגְדָּל וְרֹאשׁוֹ בַשָּׁמַיִם)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날리자. (וַנַּעֲשֶׂה־לָּנוּ שֵׁם)  
우리가 온 땅에서 흠어지지 않도록. (פָּן־נִפְוֶז עַל־פְּנֵי כָּל־הָאָרֶץ)
- (5 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건설한 그 도시와 그 탑을 보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וַיֵּרֵד יְהוָה לִרְאוֹת אֶת־הָעִיר וְאֶת־הַמִּגְדָּל אֲשֶׁר בָּנוּ בְּנֵי הָאָדָם)
- (6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יְהוָה)  
보라, 그들이 한 민족이고 그들 모두의 언어도 하나이다.  
(הֵן עַם אֶחָד וּשְׂפָה אַחַת לְכָלָם)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들의 시작이다. (וְזֶה הַחֲלָם לַעֲשׂוֹת)  
이제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일을 그들로부터 막을 수 없을 것이다.  
(וַעֲתָה לֹא־יִבְצָר מֵהֶם כָּל אֲשֶׁר יִזְמוּ לַעֲשׂוֹת)
- (7 절) 자, 우리가 내려가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הֲבֵה נִרְדָּה וְנִבְלָה שָׁם שְׂפָתָם)  
그러면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אֲשֶׁר לֹא יִשְׁמְעוּ אִישׁ שְׂפַת רֵעֵהוּ)
- (8 절)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온 땅에 흠으셨습니다. (וַיִּפְּץ יְהוָה אֹתָם מִשָּׁם עַל־פְּנֵי כָּל־הָאָרֶץ)  
그들은 도시 건설을 멈추었습니다. (וַיַּחֲדְלוּ לְבִנֹּת הָעִיר)
- (9 절)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습니다. (עַל־כֵּן קָרָא שְׁמָהּ בָּבֶ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온 땅의 언어를 뒤섞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כִּי־שָׁם בָּלַל יְהוָה שְׂפַת כָּל־הָאָרֶץ)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에 흠으셨습니다. (וּמִשָּׁם הִפִּיצָם יְהוָה עַל־פְּנֵי כָּל־הָאָרֶץ)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벨이라는 곳에서 인간들은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 먹었다. 그는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처럼’이라는 인간의 가치 챙기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무력화 하려 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철저히 무시하셨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다. 그는 추방당해 뿔뿔이 찢고 거기서 도시를 이루고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능력에 기대어 살았다. 노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일련의 그룹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하나님이 차마 보지 못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다. 이 죄악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 홍수로 모두 쓸어버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을 정도였다. 인간이 계속 죄를 지으며 죄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인간들이 어떻게 계속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기를 원했던 아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살았던 노아 때의 인간들에게서 더 나아가 지금 이 시점에 이른 인간들은 스스로 성과 탑을 쌓아 하늘에 이르러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바벨을 건설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배반을 넘어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시도했다가 실패한 인간들의 이야기다.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왜 인간들은 늘 넘어진 돌뿌리에 또다시 걸려 넘어지는 걸까? 아마도 망각이라는 요상한 자기 방어 기제 때문일 것이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듯이 망각은 인간들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망각은 순기능도 있다. 망각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과거의 괴롭고 수치스런 체험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생하게 생각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트라우마를 안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들은 망각되어야 한다. 이런 망각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긍정적인 자기 방어 기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망각이 늘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다.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망각하면 그 자체로 재앙이다. 하나님의 경고는 늘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조차 망각한다. 왜 그럴까? 아담의 실패는 아담 개인의 문제이지 가인의 문제는 아니다. 가인은 간접적인 피해자일 뿐이다. 그리고 가인의 실패는 가인의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다. 같은 이유로 지금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도 홍수 심판의 직접적 피해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홍수 심판의 직접적 생존자도 아니다. 그들은 단지 그 심판에서 구원된 자의 후손들일 뿐이다. 홍수 심판으로 구원받은 8명을 제외하고는 당시에 이 땅에 살던 모든 자가 죽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남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오직 노아의 식구 8명만 하나님에 의해 안전하게 구원된 사람들이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 노아도 죽고 그의 세 아들도 죽었다.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바벨을 건설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홍수 심판은 단지 전설에 불과한 옛날 이야기가 돼 버렸다. 홍수 심판이 전설이 돼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에게는 신화속에나 나오는 그저 그런 신처럼 잊혀져 갔다. 그들은 마침내 기억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다. 아마도 홍수 심판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기 위해 하나님마저 지워 버렸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바벨을 건설하려 했던 그들의 시도는 그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도전이었다.

인간은 이제 집단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바벨을 건설하려 했던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려고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언어였다. 그들은 통일된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 게다가 마음까지 하나로 모아졌다. 언어와 의사의 통일은 짐짓 소통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멋진 이상을 구현할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

다.마음이 맞는 이들끼리 같은 언어로 ‘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점점 그들은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원시적 형태의 과시즘(Fascism)이 태동하게 된다. 과시즘은 대동단결을 원한다.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대동단결의 구호 아래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반동으로 몰린다. 그래서 과시즘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집단 최면에 걸린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늘 정당하다. 바벨을 지으려던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 놀랍게도 성경은 누가 주동자인지 지목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주모자고, 모든 사람이 한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섰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시즘적 사고로부터 안전한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보다 자신이 따르는 목사에게 더 높은 권위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가치나 체면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뒷전으로 밀어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바벨을 쌓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다. 이런 인간들은 스스로가 높아져야 직성이 풀린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겸손조차 교묘한 자기 높임의 수단이 된다. 스스로 겸손한 체 하지만 내면에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다.

바벨 건설을 중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왜 아직도 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 챙기기에 그렇게 열중할까? 솔직히 말해 하나님조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벨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 한 때 존재했었던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아니다. 오늘날 이 순간에도 우리 중에 함께 있는 자들이다.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들도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볼 일이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사탕발림식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벨을 건설하려는 우리 안의 또 다른 자아를 향해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 대적의 이름 시날 (수요일)

### 오늘의 본문 (창 9:1~9)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벨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부분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아래의 문학적 구조는 케네스 메튜스의 주석 *The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1:26 (Vol. 1A) (1996)*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 A: “모든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음”(v.1)
- B: “그곳에”(v.2)
- C: “서로”(v.3)
- D: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v.3)
- E: “자, 우리가 건설하자”(v.4)
- F: “도시와 탑을”(v.4)
- G: “여호와께서 내려오심”(v.5)
- F: “도시와 탑을”(v.5)
- E: “사람이 건설하고 있는 것”(v.5)
- D: “자, 우리가 뒤섞자”(v.7)
- C: “서로”(v.7)
- B: “그곳으로부터”(v.8)
- A: “모든 땅의 언어”(v.9)

이러한 문학적 구조에서 핵심 주제는 가운데 부분이다. 전체 스토리의 한 복판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심”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에 개입하시는 부분이다. 인간들은 늘 스스로의 존재를 높여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노력한다. 처음 네 개의 절은 인간들의 자기 노력이고, 후반부 네 개의 절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을 건설한 이야기를 살펴 보자. 인간들의 입이 하나로 모아졌다. 의견이 통일되었고, 한 사람도 예외없이 모두가 바벨 건설에 동의했다. 바벨을 쌓기로 한 사람들은 원래 동쪽에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동쪽으로부터 이동해 오다가 ‘시날’ (שִׁנְלַ) 평지를 만나 그곳에 거주한 자들이다. ‘시날’ (שִׁנְלַ)은 ‘성읍의 이빨’ (tooth of city)이라는 뜻이다. 모든 것을 부수어 흩어 버린다는 의미도 있다. 역사적으로 ‘시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 백성과 아주 밀접한 인연이 있는 단어다.

첫 번째 시날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관계가 있다. 그가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는 동방으로부터 온 연합군의 침공을 받는다. 소돔과 고모라는 주위의 성읍들과 힘을 합하여 그들을 막아보지만 역부족이었다. 동방으로부터 온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해 갔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화를 당했었다. 이 때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한 연합군의 우두머리 격이 ‘시날’이었다.

두 번째, 잊혀진 이름 같았던 이 시날은 의외의 사건에서 또 다시 그 이름이 언급된다. 여호수아서 7장 21 절에서다. 가나안 땅의 관문이자 첫 점령 대상이었던 여리고 성을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하지 않고도 손쉽게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기세로 밀고 나간다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 건 누워서 떡먹기였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아이성 공략에서 그기세가 꺾이고 만다.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 원인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다.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치명상을 입혔다. 아간은 여리고 성 공략 중에 보았던 갖가지 재물에 눈이 어두워졌고 결국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슬쩍 뒤로 빼돌렸다. 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이실직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아간을 유혹하여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였을까? 바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였다. 은과 금은 덤으로 가졌다.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한 시날이나 아간을 유혹한 시날은 세 번째로 언급할 시날에 비하면 애교에 불과할 뿐이다.

세 번째 시날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 제국의 그 시날이다. 바벨론 제국의 시날은 악독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훼파했다. 그들은 유다왕 여호야김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들을 탈취해서 시날 땅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가져다 두었다. 엄밀히 말하면 유다왕 여호야김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고, 성전 그릇들을 탈취해 가도록 한 장본인은 하나님이셨다. 그들은 남유다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찮은 신으로 여겼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해 그런 치욕스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신을 누가 믿고 숭배하겠는가? 시날을 기반으로 한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 자기들의 신전에 덩으셔서 하나님을 모욕하려 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처럼 시날은 단지 베벨론 지역에 있는 어떤 평원의 이름이 아니다. 잊혀진 먼 과거의 이름도 아니다. 시날은 이름 그대로 믿는 자들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다가온다. 때론 택한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자로, 때론 그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달콤한 악의 속삭임’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끝 모를 인간 욕망의 결정체로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에 홀려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 땅에서의 영광과 번영을 추구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시날에 머물며 그곳에 바벨을 건설하고 있는 자인지도 모른다. 물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스런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이야 항상 있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타인의 마이너스를 통해 나의 플러스를 만드는 제로섬 게임이 만연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만은 언제나 플러스를 가지길 원한다면 어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며, 다른 이들에게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는 그 모습 속에서 시날 땅을 파헤쳐 거대한 탑을 쌓은 그들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시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을 부수어 흩어버리려는 그 시날에 맞서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리고 바벨성을 짓는 자입니까?

# 세상에서 이름을 날린다는 것(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9:1~9)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인간들은 명예를 추구한다. 누구나 꼭대기에 오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세상은 우열을 구분하고 귀천을 가른다. 빈부를 나누고 강약으로 평가름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그래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으니 말이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요, 세상의 생존 원리다. 차별과 평가름은 역사를 통해 이미 고착화되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뺏속 깊이 박힌 인간의 DNA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 때 세계 각국은 마천루 경쟁을 벌인 적이 있다. 마천루 경쟁을 처음 시작한 것은 미국의 도시들이었다. 특히 뉴욕과 시카고 두 도시가 경쟁적으로 높은 빌딩을 지었다. 뉴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시카고는 시어즈 빌딩을 지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인 세계 무역 센터도 뉴욕에 있었다. 한동안 잠잠하는가 싶던 마천루 경쟁이 이제는 아시아로 번져왔다. 1988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쌍둥이 타워가 불을 지폈다. 이어 중국 상하이, 대만 타이페이, 홍콩 등 중화 국가들끼리 서로 경쟁을 벌이나 싶더니 2009년에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가 완공되자 세상의 모든 고층 빌딩은 그앞에 무릎을 꿇었다. 버즈 칼리파의 높이는 828미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중국 상하이 타워의 632미터보다 무려 196미터나 더 높다. 한 때 우리나라 초고층 빌딩의 상징이었던 63빌딩의 높이가 249미터인데 그보다 무려 세 배 이상 높으니 도무지 가늠이 되질 않는다. 그런데 이 두바이의 버즈칼리파도 그 권좌에서 내려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짓고 있는 킹덤 타워가 2018년에 완공된다니 말이다. 참고로 킹덤 타워의 높이는 1007미터라고 한다.

이처럼 인간들은 한없이 높이 지려고 하고 그것을 힘의 상징처럼 여긴다.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할까? 왜 그것을 자신들의 힘이라고 생각할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자, 우리가 도시와 그 꼭대기가 하늘에 있는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이름을 날리자. 우리가 온땅에서 흩어지지 않도록...”(창 11:4).

첫째, 높아진다는 것은 이름을 내는 것이다. 이름은 히브리어로 셴(שֵׁן)이다. 노아의 맏아들 셴과 발음이 같다. 셴은 ‘장소’라는 의미도 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간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날리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름 석자를 높이고 명예롭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름 앞에 수많은 타이틀을 붙인다. 명문 대학을 나오면 학교 이름이 그사람 이름 앞에 붙는다. 이미 알려진 부모나 남편의 이름을 앞에다 붙이기도 한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은 곧바로 그사람의 사회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요즈음 금수저 논쟁이 한창이다. 이와는 반대로 스스로를 흠수저라 부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부모의 이름까지 수치스럽게 여긴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다. 요즈음은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수많은 악의 근원임을 볼 수 있다.

둘째, 높아지기 위해서는 힘을 축적해야 한다. 이들은 바벨을 건설하면서 온 세상에 흠어짐을 면하고자 했다. 자신들끼리 뿔뿔 뭉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안간힘을 쓴 거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은 한 곳에 뭉쳐 산 게 아니라 떠돌이 삶을 면치 못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분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수많은 노비들을 거느리며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그렇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을 받은 자였음에도 한번도 자기 땅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이방인’이었다. 가나안 땅에서도, 잠시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늘 나그네처럼 살았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장지를 마련하고자 막벨라굴과 그 앞에 있는 밭을 샀다. 값을 받지 않겠다는 주인에게 억지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말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삼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한 땅이었다. 하지만 그 땅은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이었다. 게다가 그는 한번도 그 땅에서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과 연합하여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지도 않았다. 다른 이들을 끌어 모아 자신의 세력을 넓혀 가며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일생을 산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올인하지 않는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 연연해 하지도 않는다. 지나가다 하룻밤 머문 곳에 이름을 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름을 낸다는 것은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자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나그네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나그네는 자기가 머문 곳에 흔적을 남기는 법이 없다. 도시를 건설하지도, 탑을 쌓지도 않는다. 세력을 키우는 것도 나그네에게는 전혀 관심 밖이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순례자라 부른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 자신을 정말로 순례자라고 여기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자신이 순례자요 나그네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심중 팔구 자기 이름 높이기엔 집착하고 자기 성을 쌓는 일에 골몰하게 되어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는 이름을 내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당신은 정말 나그네가 맞는가? 아직도 시날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만의 성을 쌓고 하늘 높이 탑을 건설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조차 그들과 다를 바 없이 한통속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어찌면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바벨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자일 수 있다. 나그네 의식을 갖는 것은 평생을 훈련해 가야 할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고단한 길로 걸어나오라고 하신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름을 내고 세상에서 안락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외롭고 고단한 순례자의 길을 떠날 것인가?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내고 힘을 과시하며 사는 일에 힘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싶은가요? 그 길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기꺼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언어를 혼잡케 하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9:1~9)

###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인간들의 역사에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한 그 도시와 탑을 보기 위해 내려 오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왜 그것을 지으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계셨다. 그들은 한 민족에다 한 언어를 가졌기에 한 마음으로 뭉쳐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실행에 옮겼다. 일치단결된 그들은 불가능할 게 없어 보였다. 그들이 그러한 동기를 갖게 된 것도, 대동단결하여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탑을 건설하게 된 계기도 모두가 그들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단시키고자 했다. 이 일을 중단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으면 된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히브리어로 '다바르'(דָּבַר))은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입술(또는 혀)을 건드려 서로 다르게 움직이게 만들었다. 입술 또는 혀는 히브리어로 '사파'(שָׂפָה)다. 같은 말을 하는데 입술의 움직임과 혀 놀림이 전혀 다르게 되면 같은 단어라도 전혀 다른 발음이 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벽돌이라고 외치는데 혀의 움직임과 입술이 엉뚱하게 움직이면 절대 그 발음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발성 기관을 흔트려 놓는 방법으로 이들의 일을 중단시키셨다.

인간들은 더 이상 성을 쌓을 수 없어서 그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언어 소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바벨이라는 닉네임이 생긴 것도 그때부터다.

바벨은 혼돈이다. 바벨은 여러 내용물이 한 그릇에 쏟아 부어져 있는 것을 상징한다. 각각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한 곳에 쏟아 붓고 흔들여 대면 서로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 그래서 바벨은 한마디로 잡탕이다. 여러 가지가 뒤섞여 엉망인 상태나 모양을 잡탕이라 한다. 잡탕밥도 있고, 잡탕말도 있다. 잡탕말은 여러 가지 외국어가 뒤섞여 언어의 민족적 순수성을 잃고 혼란해진 말을 말한다. 하나님은 세상의 언어를 잡탕으로 만드셨다. 서로가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셨다는 말이다.

입술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사파'(שָׂפָה)에 대응하는 헬라어는 '글로싸'(γλῶσσα)다. 혀라는 뜻이다. 아마도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말이 입술의 놀림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했고, 헬라인들은 혀의 놀림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신약에서 흔히 말하는 방언이 바로 이 '글로싸'에서 유래했다. 원래 방언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언어라는 뜻이다. 다른 종족들이 쓰는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방언이라 한다. 이는 성경이나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구상에 왜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 기원과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바벨 사건이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언어를 다시 통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세례와 동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상징



적으로 보여주셨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4).

‘다른 언어들로’의 헬라어 원어는 ‘헤테라이스 글로싸이스’(ἑτέροις γλώσσαις)다. 곧이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다른 혀로’다. 지금까지 혀를 움직이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령님이 혀를 움직이게 하셨다. 이 사건은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도행전은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에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행 2:5~8).

바벨 사건으로 인한 언어의 혼잡은 오순절 성령님이 오심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바벨의 흠으심은 수 천년의 세월을 지나 오순절에 이르러서 하나가 되었다. 신약에서의 방언은 더 이상 혼잡이 아니라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다. 인간들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나의 입술, 하나의 언어를 무기 삼아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입술을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교만을 치시고 그들을 낮추셨다. 오랜 세월을 지나 이제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바벨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완성될 때 비로소 바벨의 혼돈은 사라지고 질서가 회복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다.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3~6).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혼돈의 세상 바벨에서 각기 흩어져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또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정말 바벨의 저주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 높아질 수 없다. 혼돈의 세상 바벨을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주를 따를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발휘된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바벨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인가? 아직도 여전히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발뺌꿈치를 들어 올리며 바둥대고 있지는 않는가?

## 묵상을 위한 질문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단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혼돈을 바로잡는 질서의 소리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복의 소리임을 깨달았나요? 당신은 그 혀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고 있나요?

## 셈의 후손들 (토요일)

### 오늘의 본문 (창 11:20~26)

- (10 절) 이것은 셈의 족보입니다. (אַלָּה תּוֹלְדֹת שֵׁם)  
셈은 100 세가 되고, 홍수 2년 뒤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שֵׁם בְּן־מֵאָת שָׁנָה וַיּוֹלֵד אֶת־אַרְפַּכְשָׁד שְׁנַת־מֵאָת אַחַר הַמַּבּוּל)
- (11 절)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חַי־שֵׁם אַחֲרֵי הוֹלִידוֹ אֶת־אַרְפַּכְשָׁד חֲמֵשׁ מֵאוֹת שָׁנָה וַיּוֹלֵד בָּנִים וּבָנוֹת)
- (12 절) 아르박삿은 35년을 살았을 때 셀라를 낳았습니다.  
(וַאֲרַפְכָּשָׁד חָי חֲמֵשׁ וּשְׁלֹשִׁים שָׁנָה וַיּוֹלֵד אֶת־שֵׁלָח)
- (13 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חַי אַרְפַּכְשָׁד אַחֲרֵי הוֹלִידוֹ אֶת־שֵׁלָח שְׁלֹשׁ שָׁנִים וְאַרְבַּע מֵאוֹת שָׁנָה וַיּוֹלֵד בָּנִים וּבָנוֹת)
- (14 절) 셀라는 30년을 살았을 때 에벨을 낳았습니다. (וּשְׁלָח חָי שְׁלֹשִׁים שָׁנָה וַיּוֹלֵד אֶת־עֵבֶר.)
- (15 절) 셀라는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חַי־שֵׁלָח אַחֲרֵי הוֹלִידוֹ אֶת־עֵבֶר שְׁלֹשׁ שָׁנִים וְאַרְבַּע מֵאוֹת שָׁנָה וַיּוֹלֵד בָּנִים וּבָנוֹת)
- (16 절) 에벨은 34년을 살았을 때 벨렉을 낳았습니다. (וַיְחַי־עֵבֶר אַרְבַּע וּשְׁלֹשִׁים שָׁנָה וַיּוֹלֵד אֶת־פֶּלֶג.)
- (17 절) 에벨은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חַי־עֵבֶר אַחֲרֵי הוֹלִידוֹ אֶת־פֶּלֶג שְׁלֹשִׁים שָׁנָה וְאַרְבַּע מֵאוֹת שָׁנָה וַיּוֹלֵד בָּנִים וּבָנוֹת)
- (18 절) 벨렉은 30년을 살았을 때 르우를 낳았습니다. (וַיְחַי־פֶּלֶג שְׁלֹשִׁים שָׁנָה וַיּוֹלֵד אֶת־רְעוּ.)
- (19 절) 벨렉은 르우를 낳은 후 209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חַי־פֶּלֶג אַחֲרֵי הוֹלִידוֹ אֶת־רְעוּ תִשַׁע שָׁנִים וּמֵאוֹת שָׁנָה וַיּוֹלֵד בָּנִים וּבָנוֹת)
- (20 절) 르우는 32년을 살았을 때 스룩을 낳았습니다. (וַיְחַי רְעוּ שְׁתַּיִם וּשְׁלֹשִׁים שָׁנָה וַיּוֹלֵד אֶת־סֻרוּג.)
- (21 절) 르우는 스룩을 낳은 후 2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חַי רְעוּ אַחֲרֵי הוֹלִידוֹ אֶת־סֻרוּג שְׁבַע שָׁנִים וּמֵאוֹת שָׁנָה וַיּוֹלֵד בָּנִים וּבָנוֹת)
- (22 절) 스룩은 30년을 살았을 때 나홀을 낳았습니다. (וַיְחַי סֻרוּג שְׁלֹשִׁים שָׁנָה וַיּוֹלֵד אֶת־נָחוֹר.)
- (23 절) 스룩은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חַי סֻרוּג אַחֲרֵי הוֹלִידוֹ אֶת־נָחוֹר מֵאוֹת שָׁנָה וַיּוֹלֵד בָּנִים וּבָנוֹת)
- (24 절) 나홀은 29년을 살았을 때 데라를 낳았습니다. (וַיְחַי נָחוֹר תִּשַׁע וְעֶשְׂרִים שָׁנָה וַיּוֹלֵד אֶת־תֵּרַח.)
- (25 절) 나홀은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חַי נָחוֹר אַחֲרֵי הוֹלִידוֹ אֶת־תֵּרַח תִּשַׁע־עֶשְׂרִים שָׁנָה וּמֵאוֹת שָׁנָה וַיּוֹלֵד בָּנִים וּבָנוֹת)
- (26 절) 데라는 70년을 살았을 때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וַיְחַי־תֵּרַח שִׁבְעִים שָׁנָה וַיּוֹלֵד אֶת־אַבְרָם אֶת־נָחוֹר וְאֶת־הָרָן)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은 다시 셈의 족보를 언급한다. 셈의 족보는 이미 10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10:21~31 참조). 그런 데 10장과 11장의 족보를 상세히 읽으면 서로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히브리어에 ‘톨레도

트'(תִּיבִּין)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말로는 계보, 족보라고 번역된다. 10 장 1 절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토드”라고 말해 노아의 세 아들 모두를 포괄하는 족보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셈의 족보만을 별도로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10 장에서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앓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10:23). 그런데 11 장에는 오직 아르박삿만 기록하고 있다. 셈은 홍수 2 년 뒤인 그의 나이 100 세가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 후 500 년을 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게 전부다. 나머지 네 아들 엘람, 앓수르, 룻, 아람의 이름이 없다. 그들은 단지 아들들이라는 한 단어에 전부 포함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성경은 아르박삿이라는 단 하나의 아들에만 주목하고 있는 걸까?

아르박삿만 그런 것이 아니다. 아르박삿의 아들 중에서도 오직 셀라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아르박삿이 35 세에 셀라를 낳고 403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나머지 자녀들은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아들이 몇 명인지 딸이 몇 명인지 알 도리가 없다. 성경은 다른 이들의 이름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오직 셀라만 그 이름을 족보에 올렸을 뿐이다. 에벨의 아들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우리는 에벨이 욥단과 벨렉을 낳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10 장에서는 욥단의 후손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11 장에서는 에벨의 둘째 아들 욥단에 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다.

11 장의 족보에서는 왜 특별히 아들들 중에 단 한 사람의 이름만 주목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26 절에서 찾을 수 있다. 26 절에는 데라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띈다. 바로 아브람이다. 성경은 셈의 족보라고 적고 있지만 사실상 아브람의 조상들의 족보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람을 선택해 부르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들이름이 나열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등의 순서로 하나씩 선택해 왔다는 말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11 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가 10 장의 기록과 달라진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발탁될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 다른 조상들처럼 잘난 것 없는 없음 그 자체였다. (아브람은 그의 나이 아흔 아홉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셨다(창 17:5)). 만약 예수님이 그의 족보를 따라 욥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이름 역시나 아무런 흔적없이 기록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11 장에 적힌 셈의 족보가 말해주고 있다.

모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으나 촌구석에서 이름없는 목수로 살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훗날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1 장에 그의 조상들의 이름도 덩달아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한 뛰어난 자질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 언젠가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창세기 설교를 하시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하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제시하셨다. “그냥!”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 생각된다. 성경 어디에서도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구원하셨을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찾아내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모태 신앙도 합당한 조건이 될 수 없다. 정성껏 헌금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설령 자기 스스로 그 이유를 발견한다 해도 그것은 한낱 인간의 얇은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없이 ‘그냥’ 사랑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했듯이... 그래서 셈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 뒤에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의 이름이 ‘그냥 덩달아’ 기록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조건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이름이 의미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거나 특별해서일까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당신의 이름은 흔적도 발견될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이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나요?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인가요?